"5·18 등 광주색깔 담은 창작창극 선보일 것"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신임 예술감독 인터뷰

'수성' 반주법 입힌 전통창극…4월, 첫 판소리 감상회

"시민들에 창극 매력 선사…단원들과 소통 역량 강화"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신명난 '판'을 키워 시민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원들과 함께 신명나고 다채로운 '판'을 키워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재미와 힐링과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취임 두 달여를 맞은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신임 예술감독의 포부다. 1989년 창단한 광주시립창극단은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단체로, 한국적인 공연 레퍼토리 전승 및 개발을 통해 판소리와 한국무용, 산조, 판굿 등 전통문화예술이 가진 역사성과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중앙대 대학원 한국음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중앙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악장을 역임한 김 예술감독은 타악, 그 중에서도 북을 전공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동초제 이수자이자 고법 이수자이며, '춘향가' 예능 보유자였던 고(故) 동초 김연수 명창의 막내아들로 현재 한국모듬북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초대 단장부터 최근 유영애 예술감독까지 역대 감독들은 모두 판소리 명창이었습니다. 저만 기악인 출신이죠. 단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대반, 걱정반으로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걱정은 기우였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의 계획은 크게 세가지다. 전통창극과 창작창극으로 광주 시민에게 창극의 매력을 전하는 것과 '판소리 감상회'를 통해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먼저 전통창극 '춘향가'·'수궁가'·'흥보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에 '수성'(隨聲) 반주법을 입혀 색다른 작품을 선보일 생각이다.

'수성'은 '소리를 따른다'는 의미로 가야금, 해금 등 악기 연주자들이 창자(唱者)의 노래에 맞춰 즉흥적으로 반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해진 형식과 가락이 없기 때문에 같은 작품이라도 다른 소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좋은 창극 작품을 만들려면 소리를 중심으로 한 작창과 음악이 중요합니다. 수성 반주법은 가야금·해금·대금·아쟁 등 7가지 악기를 중심으로, 작곡된 곡 그대로가 아닌 노래 부르는 사람의 호흡에 선율과 장단을 맞추기 때문에 전통 작품을 매회 색다르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김 예술감독은 또 지역에 얽혀있는 이야기 또는 5·18 등을 주제로 한 작품 광주만의 색을 담은 창작창극을 올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며 '판소리 감상회'를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판소리 감상회는 단원들만을 위한 판입니다. 정기공연과는 다르게 단원 개개인이 자신만의 실력과 매력을 선보이는 자리죠. 첫 판소리 감상회는 4월에 예정돼있는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단원들 대신 김일구 명창을 초청해 무대를 꾸밀 생각입니다. 또 회관 리모델링으로 공연장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 광주·전남지역의 고택을 활용한 무대로 관객과 만날 생각입니다."

그는 또 단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시립창극단 가족 모두는 공동운명체이기에 단원들과 더욱 소통해 신명나는 작품과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작품 선정과 제작 과정에 단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단원들은 창극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력할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에요. 관객들은 공연을 보며 울고 웃고, 그런 모습을 보고 단원들이 힘을 얻어 상생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Museum on Play' 온라인 문화놀이터

국립광주박물관, 8개 주제 개설

너와 내가 그리는 도자기 온라인 수장고

흙의 조각, 도자기를 맞춰요!

단순한 게임을 하며 콘텐츠를 배우고, 감상하고, 만들어보는 온라인 문화놀이터가 오픈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게임과 인터랙티브 체험으로 우리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Museum on Play'를 개설했다. 일명 온라인 체험형 가상박물관.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온라인 체험형 가상박물관은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을 지향하는 광주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희고 둥근 달항아리 형태로 만들었다. 가상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도자기를 빚는 기법 중 하나인 타래쌓기(코일링기법)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각 방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가상박물관은 현재 도자기 주제 5개와 신안해저문화재 주제 3개 등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도자기 주제는,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까?, 찾아봐! 옛 그림 속 도자기, 너와 내가 그리는 도자기, 흙의 조각 도자기를 맞춰요!, 도자기는 어떻게 쓰일까? 등이다.

또한 신안해저문화재 주제는 바다에서 건진 문화재, 항해하는 무역선, 700년 전 이야기를 품은 신안해저문화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Museum on Play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호남 전통예술인 136명 예술혼 기린다

'한국의 명인명무전'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형문화재 김동언

성심온 전남대 명예교수

전통예술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해 32년째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열고 있는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가 이번에는 광주와 호남 출신 전통예술인을 추모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제107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광주-호남 전통예술인 136명 추모제' 공연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전통의 원형 보존과 전승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전통춤의 뿌리를 찾아가는 무대로 지난 1990년 첫 공연 이후 서울을 포함해 전국의 도시를 비롯 일본과 중국, 몽골, 미국, 하와이 등 국내외 80여 곳에서 열렸다. 공연에 참여한 예술인들만 연간 3300여명에 달한다.

이날 공연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무동 명무 고(故) 김천흥, 판소리 명창 고(故) 박동진, 호남검무 명무 고(故) 한진옥 등을 비롯해 명창 임방울, 가야금 산조 창시자 김창조, 명무 이매방 등 지역의 국악인 136명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작법', '바라춤'을 시작으로 '초립동', '쑥대머리', '소고춤', 강선영류 '태평무', '가야금 산조', 이매방류 '호남검무', '설장고' 등으로 꾸며진다.

무대에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와 무형문화재 박시양·김동언, 부산 영산재 전승교육사인 혜화스님과 박야림 대전살풀이춤 이수자, 김연옥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최미령 하늘땅풍물놀이예술단 단장, 성심온 전남대 명예교수, 임귀성 이매방류호남검무보존회 회장 등 20여명이 오른다.

VIP석 10만원, R석 5만원. 문의 010-4762-43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봄이 오면 산에 들에' 공연

26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진악당 무대에서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악연주단 '봄이 오면 산에 들에'〈사진〉가 다채로운 전통음악으로 봄의 꽃내음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신명나는 '사물놀이'로 시작해 다양한 장단에서 여러 가지 기교를 선보이는 기악중주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서용석류 해금산조', 춘향이와 몽룡의 사랑을 표현한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봄의 전령사 매화의 고결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무용 '매향무', 다양한 새들의 울음소리와 자태를 표현한 남도민요 '새타령' 등을 선보인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무료관람.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 신규 입점 상품 공개모집

광주관광재단은 '2022년도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 신규 입점 상품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에 소재한 디자인 및 공예 상품, 공산품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입점 후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에서 위탁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점 희망업체는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입점을 원하는 상품과 함께 4월 7일까지 남도관광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12월 31일까지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한편 남도관광센터는 전일빌딩과 함께 2020년 5월 개관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기 전 남긴 사진첩·글씨, 보존처리된다

삼성문화재단, 사진첩 등 독립운동 유물 3점 보존처리 지원

중국 하얼빈 의거로 뤼순 감옥에 갇힌 안중근(1879~1910)이 사형당하기 전 꺼내 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첩〈사진〉과 옥중에서 남긴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의 보존처리가 이뤄진다.

삼성문화재단은 안중근 순국 112주기를 나흘 앞둔 2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소장품인 가족 사진첩 1점과 유묵 2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문화재단이 독립운동 관련 유산의 보존처리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단은 지난해 안중근 관련 유물을 조사해 보존처리가 필요한 물품 3점을 선정했고, 1월 13일 인수했다. 리움미술관이 1년간 보존처리를 한 뒤 내년 3월 숭모회에 다시 인계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6일 일본인 소장가가 안중근의사기념관에 기증한 사진첩에는 부인 김아려와 아들 분도, 준생이 찍힌 사진이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세 사람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이튿날인 1909년 10월 27일 하얼빈에 도착했고, 이로 인해 안중근이 가족과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일본 경찰이 한복 차림 가족을 수상하게 여겨 총영사관으로 연행한 뒤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는 "뤼순 감옥 관리가 사형이 언도된 안중근을 안타깝게 생각해 비단 사진첩을 마련한 뒤 사진을 담아 건넨 듯하다"며 "모서리의 닳은 흔적은 안중근 의사가 수없이 꺼내 본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첩은 연결 부분이 끊어지고 모서리가 닳은 상태이나, 사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손상 부분을 수리할 계획이다.

보존처리되는 유묵에는 '천당지복영원지락'(天堂之福永遠之樂), '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이라는 글씨가 있다. 제작 시점은 모두 1910년 3월로 짐작된다.

'천당지복영원지락'은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을 뜻하며, 천주교 신앙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됐다. '지사인인살신성인'은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를 의미한다. /연합뉴스